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수험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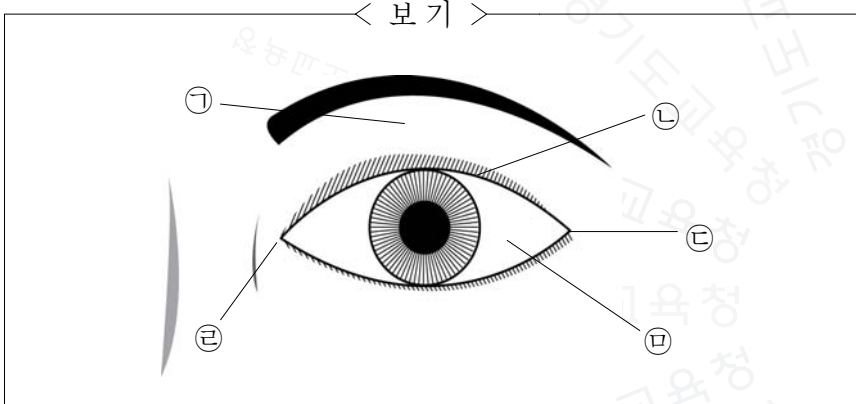
2

1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과 1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선생님이 묻고 있는 위치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2. (물음) 선배의 조언에 맞게 후배가 말한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학교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 ②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식 공간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방송하겠습니다.”
- ③ “동아리 모임과 같은 교과 외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이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방송하겠습니다.”
- ④ “학교의 빈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⑤ “휴식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학교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방송하겠습니다.”

3. (물음) 강연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알맞은 것은?

- ① 권위를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
- ② 흑백 논리로 사물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 ③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사물을 이해해야 한다.
- ④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 ⑤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사물을 판단해야 한다.

4. (물음) 토론 내용을 정리해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 장	근 거
김교수	· 젊은이들의 자아 정체성 혼란에 대한 우려 ㉠	· 베르테르 효과
	· 지속성이 결여된 대중문화에 대한 몰입	· 꼭짓점 댄스의 사례
	· 창조성이 부족한 문화 현상의 일종	· 대중매체의 효과와 문화 상품 판매 전략의 결과.....㉡
이교수	· 젊은이들의 문화적 욕구와 감성의 개방성 ㉢	· 새로운 감수성으로 복고풍 음악을 소화
	· 젊은이들이 창조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태도 ㉣	·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음
	· 세대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행위	· 기성세대의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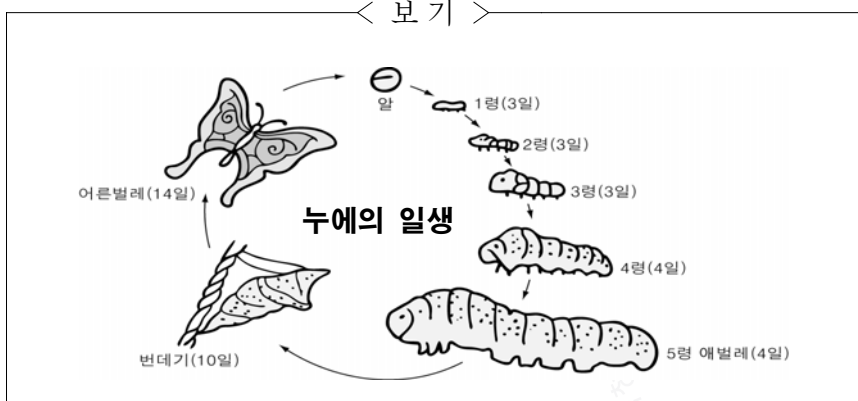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물음) 여성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 ④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강화하고 있다.
- ⑤ 상대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를 활용하여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상의 근거	추상화	글감의 생성	
변화 모습이 돌고 있음	순환 (循環)	고난과 영광은 돌고 도는 것이므로 좌절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a
알에서 다시 알로 돌아옴	환원 (還元)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다.	...b
알에서 나방으로 발달함	성장 (成長)	능력을 계발하여 실력을 키워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c
나방이 되기 까지 단계를 밟음	과정 (過程)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d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태를 바꿈	변신 (變身)	성숙한 사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e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7.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의 활성화’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세운 논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기 >

- 설문 대상 : ○○고등학교(2학년)
- 질문 내용 : 현재 독서 활동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과 분석 :
 - 독서할 시간이 부족하다.
 - 독서 취향이 치우쳐 있다.
 - 독서 방법에 대해 무지하다.
 - 체계적인 독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독서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 ① 학생들의 치우친 독서 취향을 근거로, 지역 도서관이나 언론 매체는 다양한 분야의 필독서를 선정하여 홍보하도록 한다.
- ② 어떻게 독서를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음을 근거로, 독서 일기나 독서 기록장을 활용할 수 있는 독서 방법을 안내하도록 한다.
- ③ 시간이 부족하여 독서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근거로, 오디오 북이나 e-book 등으로 자투리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④ 학생들이 독서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을 근거로, 학교는 학생들의 독서 토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⑤ 체계적인 독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독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근거로, 학부모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8. <보기>의 기준에 따라 개요를 검토하려고 할 때,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

- 주제문은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간의 내용 연결은 긴밀한가?
- 하위 항목 간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가?

주제문 :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 I.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 실태㉡
 1. 국내 고급 인력의 해외 기업 선호
 2. 해외 박사 학위 취득자의 귀국 기피
- II.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에 따른 문제점
 1. 연구 개발 인력난의 가중
 2. 연구 개발 분야의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3. 첨단 산업 기술 경쟁에서의 열세
- III. 고급 인력 해외 유출의 원인
 1. 국내의 열악한 연구 환경
 2. 고급 인력에 대한 열악한 대우
 3. 국가 경쟁력의 점진적 약화㉣
- IV.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대책
 1.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연구 환경의 개선
 2. 고급 인력에 대한 처우의 획기적 개선
 3. 국가 차원의 고급 인력 유치 전략 수립㉤
- V. 결론 : 요약 및 제언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9. 모방시 쓰기를 하였다고 할 때,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보기 >

청산(靑山)은 어찌하여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유수(流水)는 어찌하여 주야(晝夜)에 그치지 않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이황, 「도산십이곡」 중에서

○조건
- 원시의 발상에 착안할 것
- 대구의 표현을 사용할 것
- 교훈적 의미를 담을 것

- ① 양친부모 지극하게 평생을 섬기며
동기간 우애 있게 한세상 살고지고
두어라, 뜻 있는 일이 이밖에 무엇이리.
- ② 녹죽(綠竹)은 소리 없이 해마다 자라나고
강물은 쉽도 없이 바다에 이르나니
우리도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나아가리.
- ③ 층암절벽 낙락장송(落落長松) 바람에 흔들려도
흐르는 저 물처럼 변할 줄이 있을소냐.
사람이 저 나무만 못함을 애달파 하노라.
- ④ 청산(靑山)의 푸르름은 순리에 따름이요,
순리를 따라 흘러 유수(流水)는 끝없으니,
세상사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있으리.
- ⑤ 청산(靑山) 속 계절은 가는 듯 다시 오고
녹수(綠水)는 주야로 멈춘 듯 흐르나니
조물주 신묘한 재주는 헤아릴 길 없노라.

10. <보기>는 ‘학생들의 올바른 앉기 자세’를 홍보하는 글의 초안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청소년기 척추 건강은 학습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허리가 흰 학생의 비율이 점점 ㉠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바른 자세는 엉덩이를 의자에 ㉡ 깊숙히 넣어 허리를 곧게 편 채 등받이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등받이로 분산되어 자연스럽게 척추가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양발은 바닥에 붙이고 허벅지와 무릎은 직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팔은 책상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양팔을 내려 쓰리면 어깨 신경과 ㉣ 척추에서 무리가 가게 됩니다. ㉤ 의자에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할 경우에는 되도록 간접 조명이 좋습니다. 책이나 모니터를 볼 때는 목이 앞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목뼈에 무리를 주게 되므로 의식적으로 턱을 안쪽으로 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 ① ㉠은 주어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늘어나고’로 고쳐야겠어.
- ②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깊숙이’로 수정해야겠어.
- ③ ㉢은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므로’로 고쳐야겠어.
- ④ ㉣은 조사의 쓰임이 어색하므로 ‘척추에’로 수정해야겠어.
- ⑤ ㉤은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해야겠어.

11. <보기>를 참고했을 때, 어휘의 결합 관계 표시가 바르지 않은 것은?

< 보기 >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라도 문장에서 결합될 때는 유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름답다’와 ‘곱다’의 경우에 ‘경치가 아름답다.’는 성립되지만 ‘경치가 곱다.’는 성립되지 않는다.

단어 결합할 수 있는 말	지키다	수호하다	감시하다	수비하다
① 마음을	○	×	×	×
② 평화를	○	○	×	○
③ 포로를	○	×	○	×
④ 자유를	○	○	×	×
⑤ 국경을	○	○	○	○

12.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1>

<보조 용언의 문법적 기능 >
보조 용언은 본용언에 기대어 쓰이면서 그 말에 의미를 더해 준다. 또한 보조 용언은 자립성이 약해 본용언과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의 서술어가 된다.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1.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씀도 허용한다.
2.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3.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보기2>

ㄱ. 불이 꺼져 간다.
ㄴ. 그가 아는 척한다.
ㄷ. 이 과자를 먹어 보아라.

- ① ㄱ의 ‘간다’는 ‘이동’의 뜻이 아니라 ‘꺼지다’의 뜻을 강화해 주는군.
- ② ㄱ의 ‘불이 간다’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꺼져 간다’가 한 덩어리가 되어 서술어 역할을 하는군.
- ③ ㄴ과 성격이 같은 보조 용언이 쓰인 문장으로는 ‘그는 잘난 체한다.’도 있겠군.
- ④ ㄴ은 ‘척한다’ 사이에 ‘을’이 붙을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척을 한다’로 띄어 써야 되겠군.
- ⑤ ㄷ의 ‘먹어’ 뒤에 ‘도’가 붙는 경우에는 ‘먹어도보아라’로 붙여 써야 되겠군.

[13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 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받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 리 묘향산 백오십 리
 묘향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비인 차 안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찌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푹푹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백석, 「팔원(八院)-서행시초3」

(나)

뿌리가 뽑혀 하늘로 뻗었더라.
 낮말은 쥐가 듣고 밤말은 새가 들으니
 입이 열이라서 할말이 많구나.
 듣거라 세상에 원
 한 달에 한 번은 꼭 조국을 위해
 누이는 피 흘려 철야작업을 하고
 날만 새면 눈앞이 캄캄해서
 쌍심지 돋우고 공장문을 나섰더라.
 너무 배불러 음식을 보면 회가 먼저 동하니
 남이 입으로 먹는 것을 눈으로 삼켰더라.
 대낮에 코를 버히니
 슬프면 웃고 기뻐 울었더라.
 얼굴이 없어 잠도 없고
 빵만으론 살 수 없어 쌀을 훔쳤더라.
 물구나무서서 세상을 보고
 멀리 고향을 바라 울었더라.
 못 살고 떠난 ㉠ 논 바닥
 세상에 원
 아버지는 한평생 허공에 매달려
 수염만 허영게 뿌리를 내렸더라.

-정희성, 「물구나무서기」

(다)

세상 인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아까운 저 쟁기는 벗보님*도 좋구나.
 가시가 영킨 묵은 밭도 쉽게 갈려마는
 텅 빈집 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렸구나.
 봄갈이도 거의 지났으니, 팽개쳐 던져두자.

(중략)

보잘 것 없는 이 몸이 무슨 뜻이 있으랴마는
 두세 이랑 ㉡ 논밭을 다 묵혀 버려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않겠노라.
 내 빈천(貧賤) 싫게 여겨 손을 내젓는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부러워하여 손짓한다고 나아오라.
 인간 세상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겼으랴.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음이 어렵다 하건마는
 [A] 내 생애 이러하되 서러운 마음은 없노라.
 단사표음(單食瓢飮)*도 만족하게 여기노라.
 평생의 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없노라.
 태평스런 세상에 충성과 효도로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그르다고 할 이 누가 있으랴.
 그 밖의 나머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노라.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내지인 :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머물던 일본인
 * 주재소장 : 일제 강점기의 순사들이 머물러 근무하던 곳의 우두머리
 * 내임 : 요금의 일본말
 * 벗보님 : 쟁기의 날
 * 단사표음(單食瓢飮) :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
 * 온포(溫飽) :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음

13.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② 현실을 극복하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대화 형식을 빌어 내면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14. (가) ~ (다)의 화자와 작품 속 인물이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窓)을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쯤닥 바가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작자 미상

- ① (가)의 화자 : 어린 계집아이조차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의 아픔에서 생기는 답답함입니다.
- ② (가)의 계집아이 :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오는 답답함입니다.
- ③ (나)의 화자 : 산업사회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민중의 처지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 ④ (나)의 누이 :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회 구조의 모순 때문에 생기는 답답함입니다.
- ⑤ (다)의 화자 :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답답함입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야기시는 묘사 위주의 시와는 달리 삶의 과정과 삶의 조건을 다룬다. 이야기시는 이야기나 사건의 내용이 서사적인 구조를 통해, 작가 자신의 체험을 독자에게 직접 토로하는 일반적인 고백의 형태를 취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적 상황 속에서 인간의 행위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야기시는 진솔한 인간적 감정을 드러낼 수 있으며, 당대의 현실 문제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 ① 시적 대상의 삶의 모습이 서사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통해 인물의 처지가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③ 시대상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상황의 사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 ④ 화자의 연민 어린 시선을 통해 현실에 대한 진솔한 인간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여 당대 현실의 삶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물구나무서기’는 기본적으로 반어의 미학으로 구축되어 있다. 물구나무 선 현실, 이 현실을 다시 뒤집어보기, 즉 상충과 대조를 본질로 하는 반어를 통해 현실의 모순을 효과적으로 풍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인이 드러내려고 한 시적 진실이다.

- ① ‘입이 열이라서 할말이 많구나’는 기존 관용구의 의미와 반대로 표현하여 현실에 대해 할 말의 많음을 꼬집고 있어.
- ② ‘날만 새면 눈앞이 캄캄해서’는 이미 날이 밝은 상황과 상충되는 표현으로 노동자의 고된 삶을 드러내고 있어.
- ③ ‘너무 배가 불러서’는 현실 상황과 반대되는 의미이므로 궁핍한 현실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
- ④ ‘슬프면 웃고 기뻐 울었더라’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적인 유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이 나타나고 있어.
- ⑤ ‘빵만으론 살 수 없어 쌀을 훔쳤더라’는 빵조차 주어지지 않는 비극적인 현실을 풍자하고 있어.

1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과 ㉡은 서글픔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 ② ㉠과 ㉡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공간이다.
- ③ ㉠과 ㉡은 현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공간이다.
- ④ ㉠은 개인적 삶, ㉡은 공동체적 삶의 공간이다.
- ⑤ ㉠은 과거 지향적 공간, ㉡은 미래 지향적 공간이다.

18. [A]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아니하였더니,
눈 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축(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暗香)조차 부동(浮動)터라.
-안민영
- ②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샤.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풀려던가.
진실(眞實)로 풀릴 거시면 나도 불러 보리라.
-신흠
- ③ 짚 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술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온다.
아희야, 박주 산채(薄酒山菜)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한호
- ④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採薇)도 하는 것가.
아무리 푸새엿것인들 그 뉘 땅에 났더니
-성삼문
- ⑤ 동창(東窓)이 밝았으나,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치는 아이는 여태 아니 일어났느냐.
재 넘어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남구만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학은 문학인가 혹은 과학인가?’라는 질문은 개인과 시대에 따라 그 대답이 다르게 나타난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역사학을 문학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8세기 계몽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역사 서술은 옛 사람들의 선행을 본받고 교훈을 전하는 글이었으며, 역사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엄밀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적인 문체로 글을 써야 했다.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역사가들은 엄밀한 사실을 추구하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역사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였으며 역사학은 ‘정신과학’ 혹은 ‘문화과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역사학에서 ‘과학성’이 부각된 것이다. 과학의 시대를 대표하는 데카르트는 ‘명백하고 확실한’ 지식을 진리의 기준으로 여겼다. 데카르트는 역사 서술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며, 역사가가 자신의 민족이나 조상의 과거를 과장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역사학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실로 과학의 담론 즉, 엄밀한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는 일이 정제된 언어의 향취를 통해 감명과 교훈을 주는 일을 제치고 역사학의 본령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의 문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과학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역사학 자체가 ‘지식을 위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소한 학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감동을 통해 교훈을 전달하는 일은 역사학이 본디부터 지니고 있던 중요한 대중적 기능의 하나인데 역사학이 과학화된 이후 역사학은 대중들과는 멀어져 단지 학자들만을 위한 향연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문학성을 되찾는 일은 역사학 본래의 사명을 되찾는 일임은 물론, 그것을 원래의 소유자들에게 되돌려주려는 중요한 시도라는 것이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역사학도 시대상을 반영한다. 그러면 합리성에 근거한 모더니즘의 계획이 붕괴된 탈근대를 지향하는 오늘날에 역사학은 어떠한 성격을 견지해야 하는가? 오늘날 역사학은 단순히 문학적인 감동을 주도록 역사를 서술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 사실만을 나열해서도 안 된다. 역사학이란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고 할 때, ‘사실’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기술하느냐가 이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역사학이 과학이라면 역사가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역사가들의 서술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사건에 대한 역사가들의 해석은 역사가의 출신 배경, 이념, 기질 등에 따라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를 이루고 있다. ㉠역사가의 주관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역사학은 문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역사가의 주관적이고 해석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역사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문학과 과학성을 동시에 인정할 때, 역사학은 문학이나 과학과는 다른 고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9. 위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 ① 역사를 인식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 ② 현재의 역사학이 갖추어야 할 특성은 무엇인가?
- ③ 문학의 발달에 역사학이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가?
- ④ 역사의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⑤ 역사의 교훈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0. 위 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을 이야기체로 서술함으로써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대중들에게 전달했다. 반면, 투키디데스는 객관적인 필치로 과거의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역사의 일반적 법칙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 ① 헤로도토스는 역사가의 작업과 문학가의 작업이 본질적으로는 다르다고 보았어.
- ②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마치 소설처럼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교훈을 전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어.
- ③ 투키디데스는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과학성에 입각하여 역사의 원리를 도출하려고 했어.
- ④ 투키디데스는 역사적 사실을 상상력으로 꾸미기보다는 일반 법칙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어.
- ⑤ 투키디데스는 과거의 일어났던 일을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을 역사가의 임무라고 생각했어.

21.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시대에는 중국 북방의 유목민을 무지한 오랑캐라고 멸시했으나, 오늘날에는 이들을 동서양의 문화를 연결하며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다고 본다.
- ② 구한말 단발령을 거부하며 위정척사 운동을 이끈 최익현 선생을 과거 지향적이고 폐쇄적인 인사라고 평가했으나, 최근에는 열린 민족주의자로 보고 있다.
- ③ 과거에는 동학혁명을 농민들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동학란’이라고 불렀으나, 오늘날에는 반봉건·반외세의 의의를 강조하여 ‘동학혁명’이라고 부른다.
- ④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이 쓴 글은 폐관기서(稗官奇書)를 본받았다고 하여 당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현재는 독창적이고 기발한 문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 ⑤ 과거에는 ‘백만탑다라니’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로 알려졌으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된 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가장 오래된 인쇄물로 평가받고 있다.

[22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저돌적인 성격의 최원봉은 친구인 차혁이 동생 영순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로 인해 차혁과 영순의 관계를 놓고 최주사댁과 갈등을 벌인다.

최주사댁 : 너는 요새 와서 왜 그리 혁이를 미워하니? 그래도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드니, 너무 텀 말 좀 해 봐라.

최원봉 : (㉠웃으며) 어머니는 부끄러워서 먼저 말 못해 주시겠다고. 그러면 내 말 하리까.

최주사댁 : 해 봐라.

최원봉 : 환한 일 아네요. 제가 가지고 있던 보석이 이제야 값이 비싼 귀중한 것인 줄을 아니까 그럴 것 아네요. 산돼지에게 다가가 진주를 내던져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운 진주 걸은 보석을 돼지 발밑에다가 내던지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더구나 그 위선자인 돼지가 내 진주를 빼앗아가려고 하니 내 속이 어떻게 상할 게요. 이왕 돼지 앞에 내던져 주시려거든 그 더러운 집돼지에다가! 더구나 그 진주는 내가 모르기 전부터 내 것으로 맡아 두었던 것을!

최주사댁 : (원봉이의 말을 못 듣는 듯이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다가) 그게 모도 무슨 말 뜻인지 한 마디도 못 알아 듣겠다.

최원봉 : 못 알아 들으세요? 어머니가 곡절을 이야기 안 해 주시니까 내가 더 말씀해 드릴까요.

[A] 이런 이야기가 있더랍니다. 옛날 옛적에 상놈 하나가 있는데 죽을 때 친구되는 양반에게 **삼살개** 한 마리를 선사로 주었더래요. 이 양반님은 그걸 받아 가지고 어찌 귀여운지 보물과 음식 넣어둔 곳간(庫間) 옆에다가 매두고 도적놈을 지키라고 했더래요. 그런데 그 놈의 삼살개는 **도적** 지킬 줄을 알아야지요. 도리어 도적놈한테 몽둥이만 얻어맞고 한마디 짓지도 못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니 그 양반 놈의 속이 어떻게 상해올 것이요. 호령을 해 가로되 “삼살개에게도 양반 상놈이 있구나. 너는 도적 지킬 줄도 모르니 잡아서 개장이나 해 먹겠다.”하고 나서는 불일내로 그 개 목숨이 떨어지게 되었더랍니다. 그 개는 그래도 목숨이 아까워서 다시는 아니 그러겠으니 살려만 달라고 애걸복걸한 끝에 다시 보화 곳간(寶貨庫間) 문지기 노릇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개가 그 때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지키고 있다는 곳간 안에는 별별 **보화**와 산해진미(山海珍味)가 들어 있는 줄을 알게 되었소 그러. 해서, 하룻밤에는 문을 열어 열어 제치고 들어가서 한 번에 모다 내 것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도적놈이 나서서 방해로 치지 않겠소. 그 양반 주인이 이걸 보고서는 어찌 분이 났던지 곳간 문을 죄 열어 제치고 그 안에 든 것을 죄다 도적놈에게 내 허쳐주었더랍니다.

최주사댁 : 주인도 주인이지만 그런 개가 있더라 말이니?

최원봉 : 이걸 내가 옛때옛때 꿈 속에서 들어둔 이야기예요.

최주사댁 : (얼굴을 가리며) 별 이야기도 다 들어 두었구나.

최원봉 : 하하, 내 이야기가 그리 무서워요?

최주사댁 : (번쩍 고개를 들고) 누가 무섭다고 그러니? 너 그런데 또 한 마디 대답 해 봐라. 핵이가 너만 못하니? 영순이에게 장가 올 만한 자격이 못 돼서 그러니?

최원봉 : 왜 그리 시치미를 뚝 떼려구 드슈. (돌아누우며) 흥, 그렇지요. 고만 둥시다. 산돼지와 집돼지가 비교나 됩니까?

최주사댁 : 너 왜 그리 도야지 말은 잘 내놓니? 무슨 돼지 무슨 돼지 이름까지 지어 가면서. 귓속에 못이 박히다시피 듣고 나니까 나도 이제는 진저리증이 난다.

최원봉 : ㉠ 그러니까 왜 이런 산돼지를 집 안에다가 두고 기르세요. 그게 벌써 틀린 일 아네요.

최주사댁 :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나도 요새 와서는 밤이면 돼지 꿈에 가위만 놀려 못 견디겠다.

최원봉 : 그게 더욱 내 말이, 내 꿈이 거짓말이 아닌 증거예요. 고만 둥시다. 일이란 되어 가는 대로밖에 더 될라구요.

최주사댁 : 아무리 병이 들어 누웠기로 이 가슴 속도 좀 알아다우.

최원봉 : (한참 있다가 누운 대로 상반신을 들어 주사댁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머니, 거짓말도 고만 하고 눈치 따먹기도 고만 하기로 합시다. 모자간에 서로 숨기고 있으면 그런 서먹 서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최주사댁 : 숨기기는 무엇을 숨겨?

최원봉 : ㉡ 영순이와 내가 정말 친남매지간입니까?

최주사댁 : (떨리는 소리로) 아이구 너 미쳐 가는구나!

-김우진, 「산돼지」

22. 위 글의 일부인 <보기>를 바탕으로 ㉠의 의미를 유추했을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보기 >

최원봉 : 아버지 뜻을 받아 사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원수 갚고 반역하라고 가리쳐 주면서도 산돼지를 못난이만 뒤끓는 집안에다가 몰아넣고 잡아 매여 두는구려. 울안에다가 집어넣고 구정물도 변변히 주지 않으면서, **호호호호!** 산돼지 산돼지 산돼지! **호호호호!** 자, 이 산돼지 얼굴 좀 더 들여다 보구려. (방으로 들어간다.)

최주사댁 : (방 안에서) 에구 망칙한 자식! 아, 이 놈아, 글썸 너 미쳤다.

- ①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인습에 대한 자아의 반항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②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개선하려다 좌절한 자아의 패배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궁핍한 시대적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자아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도록 구속당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 ⑤ 부모의 품을 벗어날 수 없어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좌절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23. [A]를 바탕으로 위 글의 인물 간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삼살개가 양반의 보화를 훔치려는 것으로 보아 최원봉은 최주사댁의 재산을 탐내고 있군.
- ② 양반이 보화를 도적에게 주는 것으로 보아 최영순은 머지않아 최원봉과 결혼하게 되겠군.
- ③ 삼살개에 대한 양반의 태도가 변하는 것으로 보아 최주사댁은 최원봉의 가출을 허락하겠군.
- ④ 도적에 대한 양반의 태도가 변하는 것으로 보니 최주사댁은 최원봉의 고민을 해결해 주겠군.
- ⑤ 보화에 대하여 양반과 삼살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 최원봉이 최주사댁과 갈등하는 이유가 영순이 때문임을 알겠군.

24. ㉡를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냉소(冷笑) ② 함소(含笑) ③ 희소(喜笑)
- ④ 미소(微笑) ⑤ 담소(談笑)

[25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감기약을 먹고 몸이 나른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것은 몸의 통증을 억제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약물이 몸속에서 필요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약효를 발휘하도록 하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은 이미 오래전 히포크라테스가 생각한 것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똑똑한 고분자들에 의해서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생명체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질병이 일으키는 환부 주위의 물 상태는 정상 세포와는 환경이 다르다. 환부 주변의 환경에 똑똑하게 반응하는 고분자를 약물 전달에 사용한다면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약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고분자 중에는 물과 친한 고분자도 있다. 이런 고분자는 물을 끌어들여 부피를 팽창시키는데, 이를 수화겔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물을 함유하는 이들 고분자들은 외부 자극에 따라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체처럼 반응함으로써 수축, 팽창하는 상전이(相轉移)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수축과 팽창을 조절할 때 고분자 겔 안에 존재하는 약물이 선택적으로 방출되는데,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 표적 지향 유도탄 구실을 하는 약물 전달 고분자를 제조할 수 있다.

물을 함유하는 고분자의 상전이 현상을 일으키는 외부 자극은 크게 온도와 산성도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한다. 그런데 수화겔 형태의 고분자 중 몇몇은 반대로 특정 온도 이상에서 부피가 감소하는 신기한 현상을 보인다. 이때의 특정 전이 온도를 하한 임계 용액 온도(low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 LCST)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암세포 주변의 온도는 정상 세포보다 높는데, 고분자의 온도가 몸 속 환부 주변의 온도와 유사할 경우 선택적으로 약물 전달을 수행할 수 있다. 약물을 탑재한 수화겔 형태의 고분자가 몸속을 이동하다가 특정 환부 주위에서만 부피가 축소되어 약물을 방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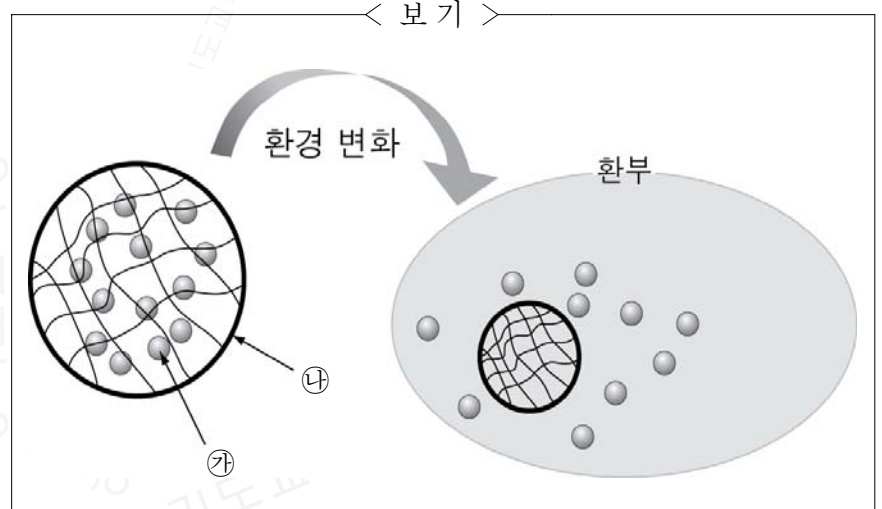
온도에 감응하는 ㉡ 지퍼 형태의 고분자를 이용하여 약물을 전달할 수도 있다. 두 개의 다른 고분자들을 연결하는 수소 결합이 온도가 높으면 풀리고 낮으면 다시 형성되어 우리가 입는 점퍼의 지퍼 같은 구실을 한다. 이와 같은 수소 결합들은 온도에 따라 매우 가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센서처럼 작동하여 'on-off' 형태로 똑똑하게 특정 부위만을 공격할 수 있다.

약물을 탑재한 수화물 고분자들은 온도뿐만 아니라 산성도에 따라서도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성도에 반응하는 고분자들은 ㉢ 이온성 고분자들로, 수용액 상태에서의 고분자가 산성도의 변화에 따라 극성의 정도가 변한다. 고분자의 극성 변화는 수용액 상태에서의 고분자의 부피 변화로 이어지는데, 이 현상을 이용하면 약물을 적절하게 배출할 수 있다. 즉, 염기성 환경에서는 고분자 사슬 사이의 공간이 촘촘해 약물이 방출되지 않는 반면, 산성 환경에서는 사슬의 공간이 넓어져 약물이 쉽게 방출되는 원리이다. 이는 산성도에 따라 고분자들이 약물을 방출하는 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5.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근거로 대상에 대한 기존 이론을 수정한다.
- ② 대상의 속성을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이해를 돕는다.
- ③ 대상의 작용 원리를 밝히면서 대상의 장점을 드러낸다.
- ④ 일상생활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한다.
- ⑤ 대상의 종류를 구분하여 작용하는 과정을 각각 설명한다.

26. 위 글을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환부에 도달하기까지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 ② ㉠: 환부의 특성을 스스로 감지해서 작용하는 성질이 있다.
- ③ ㉡: 환부의 산성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다.
- ④ ㉡: 환부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한다.
- ⑤ ㉡: 환부가 암(癌)이라면 온도로 암세포를 감지했을 것이다.

27. ㉠과 기능이 유사한 사례로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ㄱ. 미국 사막 지대에 사는 방울뱀은 먹잇감이 내는 생체적인 특징을 감지해서 먹이 사냥을 한다.

ㄴ. 음료수에 설탕을 넣으면 알칼리 이온이나 미네랄 성분이 용해되어 산성수를 알칼리성으로 바꾸기도 한다.

ㄷ. 사이드와인드라는 미사일은 적기가 비행 중에 내는 공기와의 마찰열을 추적해서 정확하게 명중한다.

ㄹ. 문어의 다리는 잘린 다음에도 살아 있을 때와 똑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8. ㉠과 ㉡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한 조건에서만 반응한다.
- ② 스스로 환부의 위치를 찾아간다.
- ③ 환경 변화에 따른 가역성이 있다.
- ④ 약물을 목적지까지 전달할 수 있다.
- ⑤ 산성인 환경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은 발레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잠자리 날개같이 하늘하늘한 옷을 입은 발레리나가 까치발로 무대 위를 떠다니듯 오가는 환상적인 장면일 것이다. 이 간단한 장면 묘사에 발레를 이해하는 핵심 단서들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다.

까치발은 발레를 현대 무용이나 여러 가지 춤 양식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 기준이다. 그리고 바로 이 까치발에 대한 거부가 발레에서 현대 무용이 갈라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전(外傳), 즉 앙 드오르(En Dehors)와 함께 발레 테크닉의 출발점이자 발레를 다른 장르와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관객들로부터 탄성을 자아내는 피루에트(Pirouette)*나 푸에테(Firouette)* 등의 각종 회전 동작은 발끝으로 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며 아라베스크(Arabesque)*같은 우아함도 발끝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발뒤꿈치를 맞대고 발끝을 180도 밖으로 벌리는 외전(外傳)이 가능해지면 무용수의 다리는 고관절로부터 해방돼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게 된다. 이 자세는 발레의 다양한 테크닉을 가능하게 하며 발레 동작을 다른 어떤 움직임보다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비결이다.

발레 의상인 튀튀도 발레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다. 치마 길이만으로 클래식 발레인지 로맨틱 발레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며 ‘발레의 역사는 치마 길이가 짧아진 기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1832년에는 외젠느 라미라는 화가가 디자인한 종(鐘) 모양의 스커트는 낭만적인 환상을 자아냈는데 이 의상이 약 100년간 발레리나의 공식 복장인 된 로맨틱 튀튀이다. 그 후 등장한 접시꽃 모양의 클래식 튀튀는 발레리나의 아름다운 다리 선과 현란한 테크닉을 과시하는데 안성맞춤이었다. 그리고 현대 발레에서는 작품의 구상 성격에 따라 발레리나의 유연한 몸동작과 화려한 기술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양한 의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발레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에서 작품의 완성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음악이다. 고전 발레 시대에는 작품 구상이 끝나면 작곡가에게 곡을 위촉하였는데 이는 음악이 춤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지 발란신은 ㉡ “모든 음악은 발레로 만들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 그의 발레들을 보고 있으면 발레리나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기보다는 마치 춤으로 펼쳐지는 음악의 이미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는 발레를 요정과 공주 이야기에서 해방시켰으며 발레가 스토리 없이도 춤과 음악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장르임을 증명하였다.

발레의 표현 수단인 발레리나의 몸도 발레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발레의 테크닉은 발에서, 표현은 상체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상체 중에서도 슬픔의 감정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등이다. 서정적인 아다주*에서 순간 드러나는 등의 깊은 굴곡, 팔을 길게 뻗고 몸을 사선으로 비스듬히 숙일 때 어깨와 등으로 이어지는 선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춤을 테크닉의 향연이 아니라 표현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최고의 경지 중 하나인 것이다.

* 피루에트(Pirouette) : 선 자리에서 팽이처럼 팽그르르 회전하는 동작
 * 푸에테(Firouette) : 한쪽 다리를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면서 다른 쪽 다리를 마치 채찍질 하듯 차면서 회전하는 동작
 * 아라베스크(Arabesque) :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하며 다른 한쪽 다리를 뒤로 뻗는 동작
 * 아다주 : 발레의 느리고 우아한 동작

2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발레의 다양한 기술은 까치발과 관련된다.
- ② 발레 기술의 종류에 따라 튀튀를 구별할 수 있다.
- ③ 발레는 현대 무용과 구별되는 고유한 기술이 있다.
- ④ 발레의 표현력을 높여주는 것은 발레리나의 상체이다.
- ⑤ 외전을 할 수 있어야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3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1)에서는 화려한 피루에트나 푸에테 동작이 이어질 수 있겠어.
- ② (장면1)에서는 튀튀가 발레리나의 아름다운 다리 선을 살리고 있어.
- ③ (장면2)에서는 우아한 자세를 취하며 외전을 하고 있어.
- ④ (장면1, 2)의 발레 의상으로 보아, 다른 양식의 발레임을 알 수 있어.
- ⑤ (장면1, 2)에서는 상체를 활용하여 인체가 지닌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

31.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동량
- ② 잣대
- ③ 기폭제
- ④ 버팀목
- ⑤ 견인차

32. ㉡의 문맥적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음악과 발레의 조화가 중요하다.
- ② 발레에 있어서 음악의 위상이 높아졌다.
- ③ 발레가 음악의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었다.
- ④ 음악이 발레의 이야기적 요소를 전달하는 데 기여했다.
- ⑤ 춤에 맞추던 음악이 음악에 맞추는 발레로 발전한 것이다.

[33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인장(印章) 전각자인 수하인은 벼슬한 친구 석운에게 줄 선물을 고심하던 중 동대문 시장에서 아취가 있고 실용적이며 금값의 열 배가 되는 '전황석 인장'을 우연히 구하게 된다. 집에 돌아온 수하인은 심혈을 기울여 인장을 만들어서 석운의 아내에게 건네주었다.

석운은 아침 마누라로부터 받아 들고 나온 인장 한 방을 오준에게 내주었다.

“이게 무슨 돌이지요?”

“글썸 무슨 돌이든 간에 돌이야 돌이겠지, 금이 될 수 있겠소. 값이라면 새긴 정성이겠지요…….”

“돌이나 좋은 것이면 몰라도 도장이야 어디 쓸모가 있어요?”

“왜요?”

“이거라구야 석운 선생 퇴관 후에나 쓸모가 있을지, 지금 당장에야 어디에 이걸 씁니까?”

“그것도 옳은 말씀이시구만, 어제 수하인 강명진 형이 한 벌 해온 것이랍니다.”

(중략)

“글썸올시다.”

도장방 주인은 인면(印面)을 들여다보며 오준의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할 뿐이다.

“값이 나가는 것이요?”

“누가 새긴 것입니까?”

㉠ “수하인이란 사람이 새겼다니봅디다…….”

주인도 그것이 수하인의 솜씨임을 모르고 묻은 말은 아니다. 무슨 까닭에 이 도장이 한길에 나오게 되었는질 알고 싶어 묻는 말이다.

“수하인 같은 분이 새겼다면 값을 말하기가 힘들지요.”

“건 무슨 말씀이요?”

“우리 영업하는 사람이야 석재와 치수에 따라 값을 정하지만, 수하인 같은 분이야 원래 장사가 아니시니까 혈값에 그냥도 줄 수 있는 반면, 부르는 것이 값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주인도 그 재료가 무슨 재료인지는 감별할 능력이 없었다. 밀화(蜜花)같이 말끔한 돌이라는 것으로, 혹시나 수하인이 늘 말하던 전황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주인이 먼지를 훑 붙여 내놓는 곱 속엔 각종 석재가 그득히 들어 있었다.

“골라보시우.”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데선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다.

“이게 어떻습니까?”

“그야 손님 의향이시죠.”

“대리석이죠?”

“대리석에다 대겠습니까? 계혈석이란 특수한 돌입니다.”

“결재 도장이니까 무늬도 좀 이렇게 울긋불긋한 것이 위엄이 있어 봐지 않습니까?”

“그야, 쓰시는 분 마음이지만……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장사치란 손님의 비위에 오르내리는 존재들이지만 오준은 적이 만족했다. 자체(字體)를 고르고 값을 흥정했다. 어차피 새겨갈 도장이란 것을 눈치 챈 주인은 값을 들푹이 불렀다.

“한 자에 삼천 환씩 치고, 재료값까지 합쳐 만 오천 환이면 비싼 값이 아닙니다. 그러구 이런 어른의 도장을 새기면 널리 선전도 되고 해서 처음부터싼 값으로 부른 것입니다.”

석운 앞에서 오준이 만 환 정도면 될 것이라고 장담한 것은 값을 알고 한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불러본 것이지만, 실지 그 이상이고 보니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 “비싼 값이 아닙니다. 서울 장안 다 돌아다니셔도 더싼 값을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결을 보십시오. 품이 곱이나 더 듭니다. 수정과 상아 말씀은 하시지만, 그런 것이라면 제가 이 재료를 사는 셈 치고 그냥 새겨드리지요.”

오준은 그 말엔 귀가 솔깃했다. 이 하치않은 돌 대신 수정이나 상아 도장을 그냥 새겨준다니 흥정은 된 흥정인 것 같았다.

“그러실 것 없이, 이 재료를 맡으시고 상아 도장 하나 더 끼워 반환으로 합시다.”

주인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다. 좀싼 값이긴 해도 그 도장을 수하인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까닭이다. 서법(書法)과 도법(刀法)은 물론, 돌을 다루는 것까지 이 주인은 수하인에게 배우다시피 한 사람이다. 주인은 수하인을 찾을 생각으로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았다. 동소문 집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좁은 방이지만, 알뜰스레 꾸며놓은 건넌방에 수하인은 등불 밑에 단좌하고 있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 웬일이고? 가게를 일찍 닫았구만…….”

“네……오늘 좀 이상스러운 물건이 들어왔기에 일찍 문을 닫고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젊은 친구가 내놓는 도장갑을 보고 수하인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연고이고?”

젊은 친구는, 오준이라는 작자가 그 도장을 갖고 와서 결재 도장으로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던 말에서부터 낱말이 일러바쳤다.

“자네 복일세……술을 좀 하던가?”

조용히 묻고 난 수하인은 술상을 청했다. 술을 들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 마음의 동요를 누르려고 애쓰는 것같이 보여, 젊은 주인은 오히려 미안스러웠다.

“그것이 전황석일세, 자네 처음이지?”

“네?”

젊은 주인은 전황석이라는 말에 주기가 혹 위로 오르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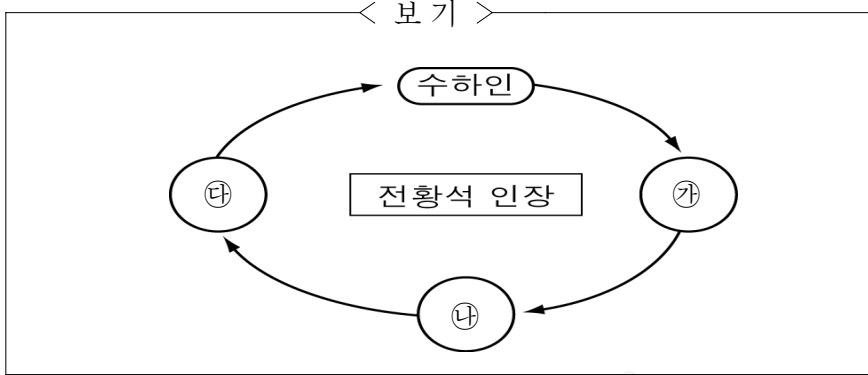
“원정 민영익 씨가 쓰던 인장이지……그것이 어쩌다 거부 이모(李某)가 갖고 있던 것을 우연스레 구했기에, 석운이 벼슬을 했어도 선사할 것이 있어야지. 그래 보냈더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구만. 자네 손에 갔으니 이제야 제값을 불러줄 사람을 찾은 셈일세.”

-정한숙, 「전황당인보기(田黃堂印譜記)」

3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 ② 대비되는 인물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전통적인 소재를 제시하여 정신적 가치를 일깨우고 있다.
- ④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의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⑤ 세태의 변화로 인해 겪게 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그리고 있다.

34. <보기>의 ㉠~㉣에 들어갈 ‘인물’과 ‘전황석 인장’에 대한 평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인물	인장에 대한 평가	인물	인장에 대한 평가	인물	인장에 대한 평가
①	오준	중립적	도장방 주인	긍정적	석운	긍정적
②	오준	부정적	도장방 주인	긍정적	석운	부정적
③	석운	부정적	오준	부정적	도장방 주인	긍정적
④	석운	부정적	오준	긍정적	도장방 주인	중립적
⑤	석운	중립적	도장방 주인	긍정적	오준	부정적

35. <보기>는 ‘수하인이 쓴 일기’이다.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오늘 저녁 뜻밖에 제자 ○○가 찾아왔다. ㉠ 손님의 심리를 꿰뚫는 솜씨가 뛰어나 ○○는 장사 수완이 탁월하다. ㉡ 장사를 잘할 뿐 더러 도리를 알고 의리도 있는 제자다. 그런데 그의 손엔 내가 만든 ‘전황석 인장’이 들려 있어서 나는 깜짝 놀랐다. 오늘 있었던 ‘전황석 인장’에 대한 자초지종을 들었다. ㉢ ○○와 술잔을 나누면서도 ‘전황석 인장’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고 나의 예술적 가치를 몰라주다니!’ 이런 생각이 들자 ㉣ 나는 오늘 친구에게 버림받은 듯 싶어 한없이 우울하고 답답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 석운과 나 사이에 벽이 높아지는 것 같아 웬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 마음을 아는지 이 밤에 눈이 계속 내리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6. 위 글을 희곡으로 바꾸었을 때, ㉠과 ㉡에 들어갈 ‘지시문’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 ㉠ | ㉡ |
| ① (진지하게) | (정색하며) |
| ② (건성으로) | (정색하며) |
| ③ (건성으로) | (희색을 띠며) |
| ④ (심드렁하게) | (반색하며) |
| ⑤ (심드렁하게) | (희색을 띠며) |

[37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매, 가산이 점점 탕진됨은 너도 보아 아는 바라. 우리 집의 전장(田庄)*이 구호동에 있더니 요즘에는 호환(虎患)이 자주 있어 사람을 상하기로, 폐농(廢農)된 지가 아마 수십 년이 된지라, 이제 그 땅을 다 일구면 너를 장가도 드리고 우리도 또한 네 덕에 종이 잘살면 어찌 아니 기쁘리오마는 너를 위지(危地)에 보내면 행여 후회 있을까 저어하노라.”

해룡이 혼연히 허락하고 이에 장기를 걷어 가지고 가려 하거늘, 변씨가 짐짓 말리는 체하니 해룡이 웃고 말하기를,

“인명(人命)은 재천(在天)이니 어찌 짐승에게 해를 보리오.”

하고, 표연히 떠나가니 변씨가 밖에 나와 말하기를,

㉠ “속히 잘 다녀오라.”

하고 당부하더라. 해룡이 대답하고 구호동에 들어가니 사면이 절벽이요, 그 사이에 작은 길이 있는데 초목이 가장 무성하였으매, 다만 호표 시랑(虎豹豺狼)*의 자취뿐이요 인적은 아주 없었으니, 해룡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옷을 벗고 잠깐 쉬려니 날이 서산에 저물고자 하거늘 밭을 두어 이랑 갈 때 홀연히 바람이 일고 모래가 날리며 문득 산상으로부터 범이 주홍과 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매, 해룡이 정신을 진정하여 대항코자 할 때, 서편에서 또다시 큰 범이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것이니, 해룡이 정히 위태하더라.

이때 홀연히 등 뒤로부터 금방울이 내달아 한 번씩 받아 버리니 그 범이 소리를 지르고 달아나거늘 방울이 나는 듯이 연하여 받으니, 두 범이 모두 거꾸러지는 것이었으니, 해룡이 달려들어 두 범을 죽이고 본즉 방울이 번개같이 굴러다니며 한 시각이 되지 못하여 그 넓은 밭을 다 갈더라.

해룡이 크게 기특히 여기어 금방울에게 무수히 치사하고 이미 죽은 범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며 돌아보니, 금방울이 간 곳이 없으매, 이때에 변씨는 해룡을 구호동에 보내 놓고, ‘제 어찌 살아 돌아오리오.’하고 들며나며 매우 기뻐하더니, 문득 밖에 소리가 나며 사람들이 요란히 떠드는 소리가 들리므로 변씨가 나가 보니 해룡이 큰 범 두 마리를 이끌고 왔던 것이다. 변씨는 크게 놀라,

“네가 무사히 다녀왔구나?”

하고, 칭찬하며 또한 큰 범 잡아 옴을 기꺼워하는 체하며 일찍이 쉬라 하더라.

해룡이 감사하고 이에 제방으로 들어가니 금방울이 먼저 와서 있더라. 이에 변씨가 소룡과 더불어 죽은 범을 가지고 관가에 들어가니 지현이 보고 크게 놀라,

“네 저런 큰 범을 어디서 잡았느냐?”

변씨가 대답하되,

㉡ “마침 호랑이 덫을 놓아 잡아 왔나이다.”

지현이 칭찬하고 즉시 전문 이십 관을 내어 상금을 주니, 변씨가 받아 가지고 돌아올 때 소룡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행여나 이런 말은 내지 마라.”

하고, 빨리 돌아오니 동녘이 아직 밝지 아니하였으니, 그때 바로 오능령이란 고개를 넘어오는데 문득 한때의 강도들이 내달아 시비곡직(是非曲直) 묻지 아니하고 변씨 모자를 잡아다가 나무 끝에다 높이 매달아 놓고 가진 돈이며 의복을 벗겨 가지고 달아나는 것이매, 변씨가 벌거벗고 알몸으로 나무에 매달리어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쓰나 어찌 벗어날 수 있으리오.

이는 변씨의 고약한 심사를 나쁘게 여긴 금방울의 농간으로

이런 횡액을 받으니, 대저 금방울의 신기함이 이와 같았느니라. 이때 해룡이 잠을 깨어 들어와 보니 변씨와 소룡이 없고 두루 찾아보니 잡아온 범조차 없어 이에 크게 놀라 두루두루 찾았더라. 길에 왕래하는 사람이 서로 말하되,

“어떤 도적이 사람을 벌거벗겨 나무에 높이 달아매었더라.”

하니, 해룡이 이 말을 듣고 의아하여 바빠 가서 보니 변씨 모자(母子)가 벌거벗고 나무에 높이 매달려 있는지라. 해룡이 이를 보고 놀라 나무에 올라가 끌어내려 업고 돌아오더니라.

이때 금방울의 신통(神通)이 무량하여 해룡이 더운 여름철을 당하면 서늘케 하고 추워하면 덥게 하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없이하여 주니, 해룡이 마음을 금방울에게 부쳐 세월을 보내는 것이었는데 이때 소룡이 나가 놀다가 살인(殺人)하고 들어와서 이르거늘, 변씨가 크게 놀라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날랜 포교들이 풍우같이 달려들어 소룡을 잡아가려 하니 변씨가 소룡을 감추고 이에 내달아 해룡을 가리켜 말하기를,

“네가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르는 체하여 허물을 어린 동생에게 미루느냐?”

하며 몸을 부딪쳐 발악하거늘 해룡이 생각하되, 내가 발명(發明)*하면 소룡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저는 아깝지 아니하나 공의 후사(後嗣)가 그칠까 저어하여 차마 어찌하리오. 내 죽어 하나는 양육(養育)하던 은혜를 갚고 하나는 공의 임종(臨終) 시의 유언(遺言)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에 내달아 말하기를,

“살인한 사람은 곧 나이며, 저 소룡은 애매하다.”

하니, 처사 등이 다시 묻지 아니하고 해룡을 잡아다가 관청의 뜰에 끌리고 다짐을 두라 하더라.

해룡이 혼연히 다짐을 두니 이대로 문서를 만들고 큰칼을 씌워 옥에 집어넣으니, 온몸에 금광이 둘러싸여 있더라. 지현이 보고 괴이히 여기어 밤에 사람으로 하여금 옥중에 가서 보고 오라 하니 이윽고 돌아와 보고하되,

“죄인들이 있는 곳은 어두워 보이지 아니하고 해룡이 있는 데는 화광과 같은 것이 비치어 밝으므로 자세히 본즉 해룡이 비록 칼을 쓰고 옥중에 갇혀 있으나, 비단 이불을 덮고 자더이다.”

지현이 듣고 신기히 여기더라.

* 전장(田庄) : 소유하는 논밭
* 호표 시랑(虎豹豺狼) : 범과 표범, 승냥이와 이리
* 발명(發明) : 무죄를 변명함

-작자 미상, 「금방울전」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웅적 서사 구조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 ② 전기성을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③ 작가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④ 사건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 ⑤ 이야기가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38. 위 글의 ‘해룡’이 겪은 위기를 <보기>와 같은 구조로 이해하려고 할 때,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차 위기(범의 공격)	2차 위기(살인 누명)
사건의 발단	(가)	(나)
사건의 해결 과정	(다)	(라)

- ① (가)에서 ‘해룡’은 자신에게 위기가 닥칠 것을 모르고 있다.
- ② (가)와 (나)에서 ‘해룡’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은 같은 인물이다.
- ③ (다)에서 ‘해룡’보다 ‘금방울’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라)에서 ‘해룡’은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다.
- ⑤ (다)와 (라)에서 ‘해룡’은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39. 위 글의 인물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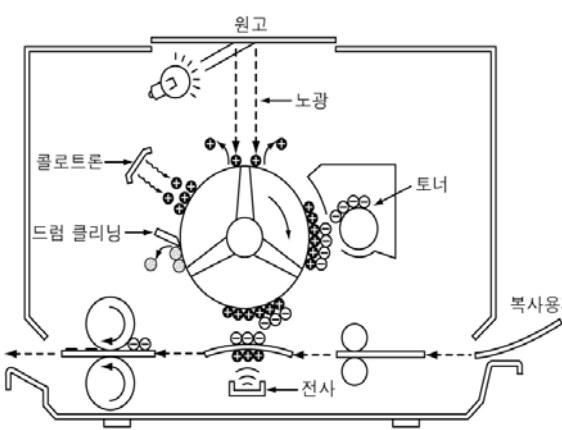
- ① 범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해룡’은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살아나는군.
- ② ‘지현’은 백성을 돌보기보다는 흑세무민(惑世誣民)하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군.
- ③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더니 ‘변씨’는 ‘해룡’에게 살인 누명까지 씌우는군.
- ④ ‘금방울’은 ‘해룡’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서 도와주는 신출귀몰(神出鬼沒)한 존재군.
- ⑤ ‘해룡’이 잡아온 범을 마음대로 ‘변씨’와 함께 관가에 바치다니 ‘소룡’은 후안무치(厚顏無恥)한 인간이군.

40. ㉠와 ㉡의 말하기 방식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① | 반대로 말하기 | 상대방 떠보기 |
| ② | 반대로 말하기 | 거짓 진술하기 |
| ③ | 비꼬아 말하기 | 상대방 떠보기 |
| ④ | 비꼬아 말하기 | 거짓 진술하기 |
| ⑤ | 상대방 떠보기 | 반대로 말하기 |

[41 ~ 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사기를 사용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깨끗하게 복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이처럼 간단하게 복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복사기의 핵심 부품은 원통형의 감광 드럼으로 이곳에는 빛을 받으면 전기적 변화를 일으키는 감광체가 깔려 있다. 복사는 정전기가 생기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인데 드럼 표면에는 +정전기가 흐르고 있고 여기에 빛이 닿으면 정전기가 흐르지 않게 된다. 이때 문서 부분에만 +정전기를 띠도록 하고, 그 위에 -정전기를 가진 토너라는 가루를 뿌려 책의 글자 모양대로 무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복사는 ‘대전-노광-현상-전사-고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복사의 첫 단계인 대전(帶電)은 감광 드럼이 정전기를 띠도록 하는 단계로 드럼 위에 설치되어 있는 ‘콜로트론’이라는 고전압 방전 장치가 정전기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드럼 표면은 전체가 +정전기를 띠게 된다.

다음 단계는 노광(露光)으로 복사할 문서를 읽어 해독한 빛이 감광 드럼에 닿게 된다. 흑백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검은 부분에 닿는 빛은 흡수되고 흰 부분에 닿은 빛만 반사된다. 이렇게 반사된 빛은 이전의 아날로그 복사기에서는 그대로 감광 드럼에 닿았지만 현재의 디지털 복사기에서는 일단 CCD라는 센서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서 문서의 종류나 농담(濃淡)의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감광 드럼에 레이저 광선을 쏜다. CCD 센서를 통해 빛을 쏜다는 것을 제외하면 아날로그 복사기와 디지털 복사기의 원리는 같다. 감광 드럼 위의 레이저 광선이 닿은 부분에서는 전기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드럼 표면의 +정전기는 중화되어 사라지게 된다. 그 결과 감광 드럼 표면에는 문서의 검은 부분에 해당하는 +정전기만 남는다.

현상 단계에서는 -정전기를 띤 토너 입자가 감광 드럼에 닿는다. 이때 드럼 표면의 +정전기는 -정전기를 띤 토너를 끌어당겨 붙인다. 이렇게 하여 문서의 검은색 부분의 모양 그대로 토너가 부착된 감광 드럼은 전사(轉寫)* 단계로 이동하고 이때 복사 용지는 토너와 반대되는 정전기를 띠게 되어 드럼에 붙어 있는 -정전기를 띤 토너가 옮겨가게 된다.

하지만 이 상태는 토너가 복사 용지에 놓여 있을 뿐이라서 용지 위에 있는 토너를 만지거나 그대로 ㉠ 두면 떨어져 나간다. 따라서 마지막 고착 단계에서 토너를 열과 압력으로 녹여 붙이면 복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감광 드럼이 정전기를 띠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복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복사 용지를 배출한 후에는 감광 드럼에 남아 있는 정전기를 드럼 클리닝이 제거해 주어야 다음 복사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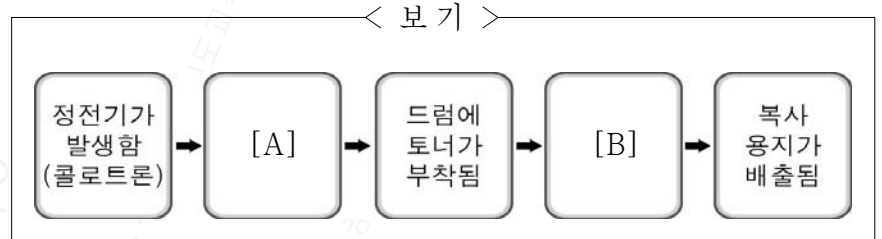
하지만 이 상태는 토너가 복사 용지에 놓여 있을 뿐이라서 용지 위에 있는 토너를 만지거나 그대로 ㉠ 두면 떨어져 나간다. 따라서 마지막 고착 단계에서 토너를 열과 압력으로 녹여 붙이면 복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감광 드럼이 정전기를 띠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복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복사 용지를 배출한 후에는 감광 드럼에 남아 있는 정전기를 드럼 클리닝이 제거해 주어야 다음 복사를 할 수 있다.

*전사(轉寫) : 글씨나 그림 따위를 옮겨 베끼거나 촬영하거나 복사함

4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않는** 것은?

- ① 드럼에는 빛에 반응하는 감광체가 깔려 있다.
- ② CCD 센서는 문서의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 ③ 복사 용지는 토너와 같은 성질의 정전기를 띠게 된다.
- ④ 감광 드럼에 레이저 광선이 닿으면 전기 저항이 줄어든다.
- ⑤ 감광 드럼 표면에 남아 있는 정전기는 드럼 클리닝이 제거한다.

42. 복사 과정을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A], [B]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3점]



- | | |
|-----------------|---------------|
| [A] | [B] |
| ① 종이가 +정전기를 띤 | 감광 드럼에 빛이 닿음 |
| ② 빛으로 문서를 해독함 | 종이가 +정전기를 띤 |
| ③ 빛으로 문서를 해독함 | 정전기가 중화되어 사라짐 |
| ④ 정전기가 중화되어 사라짐 | 빛으로 문서를 해독함 |
| ⑤ 정전기가 중화되어 사라짐 | 감광 드럼에 빛이 닿음 |

43.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접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알맞은 것은?

< 보기 >

복사 도중에 종이가 끼어 이를 수동으로 빼냈을 때, 내용은 알아볼 수 있었으나 손에 무엇인가 검게 묻어 나왔다면?

- ① 이것은 드럼 클리닝의 문제로 감광 드럼에 남아 있는 정전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겠군.
- ② 이것은 현상 단계의 문제로 토너 입자의 정전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겠군.
- ③ 이것은 고착 단계의 문제로 토너에 적당한 압력과 열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겠군.
- ④ 이것은 노광 과정의 문제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레이저 광선이 약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겠군.
- ⑤ 이것은 대전 과정의 문제로 감광 드럼이 훼손되어 드럼 표면이 정전기를 띤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겠군.

44.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이 음식을 내일까지 두면 상한다.
- ②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
- ③ 국회는 여러 분야의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 ④ 수학은 두고 국어 공부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다.
- ⑤ 집에 두고 온 어린 자식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45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컬덕(cultduct)은 문화를 의미하는 컬처(culture)와 상품을 의미하는 프로덕트(product)의 합성어이다. 즉 문화와 융합된 상품, 줄여서 문화 상품을 말한다.

왜 컬덕이 최근에 들어와 중요해졌을까? 오늘날 기업들이 자신의 상품을 차별화하는 데 기능이나 가격, 서비스 등으로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자신의 상품이 브랜드 인지도도 없고 물리적 형태도 비슷비슷한 범용 상품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기업은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상품을 생산하기를 원하지만 차별화된 문화가 담긴 상품을 좋아하는 열성 고객에게 호소력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지 브랜드 인지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컬트 고객이라고도 부르는 이 열성 고객은 그 기업의 상품을 많이 구입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좋은 입소문을 내어주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열성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 그 브랜드에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담아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 상품, 즉 컬덕이다.

미국에서는 ‘자유’와 동일시되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 브랜드가 있다. 이 브랜드는 1960년대 초, 시장 점유율이 5%까지 급격하게 떨어지고 말았지만, ‘자유’라는 이미지를 제품과 결합시켜 새로운 소비를 창출시켜 20년 만에 화려한 부활을 하게 되었다. 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열성 고객들이었다. 이들은 인기 모델을 구입하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는가 하면 최신 모델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구식 모델을 구입하기도 한다.

경쟁 기업은 컬덕을 생산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상품, 서비스는 모방할 수 있지만 그 기업 고유의 문화는 모방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기업은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가 담겨 있는 컬덕을 만들어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 고유의 이미지를 상품과 결합시키고 그러한 이미지를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컬덕이 있으면 ‘할리 데이비슨’의 경우처럼 기업이 위기에 빠져 헤맬 때에도 열성 고객이 지켜 준다. 컬덕으로 변모된 브랜드는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열성 고객으로 인해 그것과 관련된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고 이러한 문화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 대중화에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컬덕 개념은 문화 예술 분야에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문화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기업의 컬덕 브랜드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화에 성공했는지 그 원인을 잘 분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컬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소비 자체보다는 소비 행위를 즐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컬덕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경쟁 기업의 상품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독특한 문화 없이는 열성 고객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성 고객이 그 문화를 일반 대중에게 자발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은 열성 고객의 커뮤니티를 유지, 강화시켜 주고 다른 이들이 여기에 들어오기를 열광적으로 갈구하도록 해야 한다.

45. 위 글을 심화 학습하기 위한 과제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

ㄱ. 컬덕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ㄴ. 컬덕이 기업에 주는 경제적 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ㄷ. 기업이 열성 고객의 커뮤니티를 지원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ㄹ. 컬덕 브랜드가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6. ㉠을 뒷받침하는 광고의 문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실한 세상을 위해 타협하지 않았습니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신문.
 ② 배고픈 시절부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왔습니니다. ‘◇◇빵’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세요.
 ③ 반세기 동안 실용 정신으로 한 길만을 걸어 왔습니니다. 공간을 절묘하게 활용한 옹골진 아파트, ○○○.
 ④ 오렌지 추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니다. 비타민 C는 물론 칼슘, 미네랄까지 모두 담았습니니다. ○○제약.
 ⑤ 서양 음악 속에서 우리 소리의 멋과 흥겨움을 지켜 왔습니니다. 피곤하고 지친 날에 만나는 흥겨운 우리 소리, ▽▽음반.

47.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레드오션’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 공간이다. 기업은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 개발, 원가 절감, 품질의 개선 등 다양한 전략으로 다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블루오션’은 경쟁이 형성되기 이전의 새로운 시장 공간이다. 기업은 기존 산업의 경계선 밖에서 시장을 새롭게 창출하기도 하고, 기존 산업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블루오션’의 영역에 진입하기도 한다.

- ① ‘할리 데이비슨’은 기존 산업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블루오션에 진입했군.
 ② 최초의 컬덕을 만들어 낸 기업은 블루오션의 속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어.
 ③ 범용 상품의 원가를 절감하여 가격을 인하한다면 블루오션에 진입할 수 있겠군.
 ④ 경쟁 기업의 컬덕을 차용해서 상품의 경쟁력을 높였다면 그 상품은 레드오션에 속하겠어.
 ⑤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겠군.

